

의과대학 입학 어떤 곳일까 ???

이 순 형

치열한 경쟁, 그것은 의학의 전통

1. 본과진입 (本科進入)

다소 자유분방하고 낭만에 찬 의예과 과정은 그 수료식과 함께 막을 내린다. 의예과에서 성적이 좋았거나 나뻐거나 수료만 하면 재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기에 의학과로 진입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모습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기가 되는 때이다. 다소 생각과 행동이 어리고 모험적이고 탐색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마치 곤충이 변태를 하듯 본과에 들어와서는 의젓해지고 주관이 뚜렷해지며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의예과 시절의 타성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그만큼 본과생활에의 적응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개학 첫날 첫시간은 보통 진입식을 하게 되며, 이때 본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된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 강조되는 이야기는 대충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첫째 본과에서는 단 한시간의 휴강도 없다. 미리 배부되는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니 빠짐없이 출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시간 수업에 결석을 하면 그 내용을 보충하는데 3~4시간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교수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3~4시간을 소비하며 그 내용을 골짜만 간추려 1시간에 강의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시간표는 1학기에서 1년분의 강의 및 실습계획, 즉 강의제목, 강의담당교수, 강의날짜와 요일, 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하거나 준비 및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년간의 학사력은 수업일수 32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고, 한학기는 16주로 되어 있어 학기가 끝날때 마다 종합평가를 받게된다. 그러나 8주의 수업이 끝나면 중간시험을 치르는 제도를 대부분의 의대가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습내용이 거의 독립적이고 대등한 경우가 많아 중간시험 성적과 학기말시험 성적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른바 쿼터(Quarter)제라 하여 내용상으로 보면 1년이 4학기로 구성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그 과목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고 수업시간은 짧으므로 강의내용이란 거의 책을 읽는데 필요한 정의나 방향을 제시하는 개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학생자신이 책을 읽어서 스스로 익혀야 하는데, 보통 한시간 강의내용이 영어원서로 최소 20~30페이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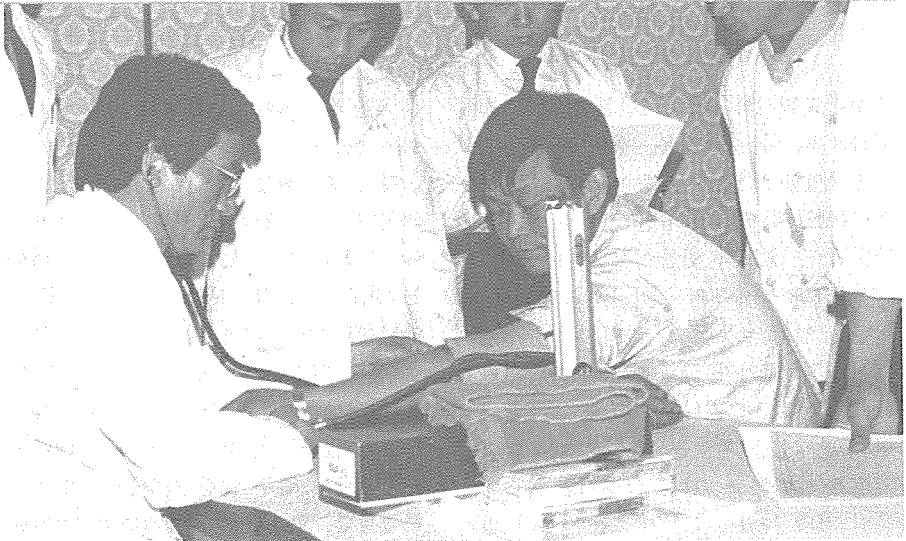
강의는 오전중에 3시간을 하게되니 그날의 수업내용을 복습하자면 약 100페이지가량의 원서를 읽어내야 한다. 여기서도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영어실력이 학습에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해방전에 의대에서는 독일의학의 영향을 받아 독일어 원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해방후 또는 사변후로 부터는 주로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로서

는 독일어 실력이 학부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독일어, 영어로 된 의학원서는 대단히 비싸다는 것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도 특히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모로 부터 엄청난 책값을 받아낸 다음 책을 사고 남은 돈으로 술도 사먹고 용돈으로도 썼다는 일화가 구전되어 내려온다. 지금도 일부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생들도 경제관념이 철저해져서 비싼 원서보다는 이것의 해석판이 더 인기가 있고, 심지어 싸구려 복사지에서 무더기로 복사를 하여 쓰는 경우 더 원가를 낮출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밀린 노트필기조차 복사로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러한 세태가 되었다.

영어로된 원서를 읽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수들이 우리 말로된 교과서를 저술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이란 원래 세분화, 전문화된 학문이어서 용어자체가 보통 말과는 크게 달라 어차피 그내용을 파악하려면 소설책 읽어가듯 쉽지는 않다. 더구나 요즘 학생층에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한자어가 많이 섞인 우리 책이 오히려 영어원서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던 의학사전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의학사전에서 한 단어 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다져가며 공부를 하여야 기초가 튼튼해진다. 그러자니 본과에 올라온 학기초에는 대단히 힘들고 바쁘지 않을 수 없다.



2. 의학의 나라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 또는 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가시밭길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지 않았을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지식을 가르칠 수 없다하여, 의예과 2년간의 인간수양 과정을 거치면서 갈망하던 바로 그 시기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의학의 나라에 첫발을 들여놓는 진입식은 간소한 의식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마치 100m 육상선수들처럼 다 같이 출발선에 도열해 있다가 힘차게 달려나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도합 26개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란 거의 전국 고등학교에서 수석 아니면 우수권에 있었던 수재들이다. 그러나 이 출발에서부터 필연적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의 석차가 정해지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 석차는 학생각자의 각고의 노력에 거의 정직하게 비례한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의대생활에서학

생들은 자신의 능력한계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며 자신이 꿈꾸어 왔던 이상의 실현이 얼마나 힘든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치열한 경쟁, 그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학의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테면 요즘같이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강의실의 앞자리에 앉으려면 다른 학생보다 더 일찍 등교를 하여야 한다. 강의실에 앉는 자리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런 선의의 경쟁은 다소 비정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학생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근면성과 합리성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 자기가 읽던 원서의 뒷두껍을 덮을때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수없는 신선한 희열을 느끼게 하고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고귀한 체험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경쟁력, 이기적인, 그리고 냉정한 성격으로 유도하는 단점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필자=서울의대교수·의박〉